

2011년 하반기 중국경제와 물가 분석

2011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1년 하반기 중국경제와 물가 분석
2. 일 시 : 2011. 7. 21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민생증권 부총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텅타이(滕泰)

1. 중국의 통화유동이 물가와 자산 가격에 미친 영향 및 예측

□ 통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통화제조는 은행만의 특허가 아님

- 통화는 금이나 은이 아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등가물임.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와 상업은행의 신규 대출이 유통 중인 통화의 유일한 근원이 아님.
- 자본시장, 자산시장 역시 통화를 창조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카드와 가상통화 등도 통화의 새로운 형태임.

□ 통화는 어디로 가는가: 4대 시장이 통화 유동을 결정

- 전통적인 실물경제 거래 수요 이외에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통화 수요량이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 역시 어음, 예금지급준비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통화를 흡수함.

□ 각 시장 간의 통화 유동은 반비례

- 광의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통화 순유입도 동시에 증가함.
- 그 외 구조적 요인도 각 시장의 통화 순유입에 영향을 미침.
- 신규로 증가된 통화 공급은 각 시장에서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반비례 관계가 특징임.

□ 통화유동은 가격변동의 선행지표임.

- 같은 해 주식시장자금과 실물경제 자금 사이에는 반비례인 역방향 변동관계가 존재하지만 일정 기간의 주식시장자금 유동은 상품시장과 부동산시장보다 1년 앞섬.
- 실물경제 자금 유동은 CPI보다 2년 앞서고 주식시장의 자금유동과 가격지수는 매우 일치하며, 부동산시장 자금의 순유입은 부동산가격보다 1년 앞섬.

□ 자금 유동 선행지표를 통한 각 시장별 향후 가격추이 예측

-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의 단위별 리스크 수익보상이 하락하고 자금 순유입 증가속도가 하락하게 됨. 2010년 부동산시장 자금 순유입은 2조 4,200억 위안(증가율은 15.8%)임. 2011년 부동산 시장 자금 순유입은 2조 5,500억 위안으로 증가율은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통화요인으로 인해 2011년과 2012년의 부동산가격은 각각 2.04%p, 0.3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주식시장: 유동성지표 선행지수와 주식시장 전환점 4개월의 기간을 보면, 주식시장의 전환점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실물경제: 단위당 GDP통화량에서 CPI 상승까지 약 2년의 전이시간이 소요됨. 2009년, 2010년, 2011년의 단위당 GDP통화량에 따라 추산한 연도별 가격지수는 각각 112, 102, 99임. 2년 앞선 시

간에 따라 추산하여 통화요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CPI가 급격히 하락하고 2013년의 CPI는 2012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됨.

2. 통화의 4단계 흡수 모델

□ 신규 증가한 통화는 4단계 흡수를 거친 후 최종 실물경제의 물가변화에 반영됨.

- 첫 번째는 부동산, 소장품, 예술품 등 자산시장의 통화흡수이고,
- 두 번째는 주식시장, 선물 시장, 파생금융상품 등 자본시장의 통화흡수이며,
- 세 번째는 예금과 대출 형식으로 은행시스템에 보존된 통화를 통한 흡수이고,
- 네 번째는 어음을 통한 흡수임. 지난 10년간 이런 4단계 흡수를 거쳐 실물경제에 유입된 통화는 57% 감소되었음.

□ 첫 번째 흡수: 지난 10년간 자산시장이 8조 9천억 위안 이상의 통화를 흡수

- 부동산 개발투자 자금 출처(자금유입)에서 부동산 개발투자(자금유출)를 차감하여 얻은 잔액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통화량을 추산하였음.
- 1999년~2010년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통화 자금 누적액이 8조 9천억 위안에 달하였고 이중 2010년에 2조 4천억 위안이 유입되었음.

□ 두 번째 흡수: 지난 10년간 자본시장이 9조 6천억 위안 이상의 통화를 흡수

- 주식시장에 유입된 통화량을 통해 자본시장에 유입된 통화량을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2000년~2010년 주식시장에 유입된 통화량 누적액이 9조 6천억 위안에 달하였고 이중 2010년에 1조 8,500억 위안이 증가하였음.

□ 세 번째 흡수: 지난 10년간 은행의 예금대출 차액이 23조 9천억 위안의 통화를 흡수

- 중국의 매년 신규 증가 통화 중 상당 부분이 예금대출 형식으로 은행 시스템 내부에서 순환되고 1999년의 1조 5천억 위안에서 2010년의 23조 9천억 위안으로 확대됨.

□ 네 번째 흡수: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의 어음이 4조 위안의 통화를 흡수

- 중앙은행의 어음은 외평기금(Funds outstanding for foreign exchange)을 동결하기 위해 부득하게 방출한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음. 2010년 말까지 중앙은행의 어음은 4조 900억 위안에 달하였고 이 중 2010년 순회수액이 1,417억 위안에 달하였음.

□ 통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2011년이 2010년보다 작음

- 장기적으로 보면 단위당 GDP 통화량과 물가변화는 상당히 일치함. 2000년 가격 기준으로 단위당 GDP 통화량에 따라 2010년 누계 물가상승률을 26.4%로 예측하였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은 26%로 상당히 일치함.
- 하지만, 단기 내 생산력 변화로 인한 통화의 타임래그 영향을 받아 단위당 GDP 통화량과 물가변화 속도차이가 있음. 2년의 타임래그 기간을 고려하면, 2010년 통화가 물가에 대한 압력이 가장 크고 2011년은 2010년보다 압력이 훨씬 경감될 것임.

3. 4단계 여과 모델: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노동원가 상승이 반드시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음.

- 중국의 노동원가 상승과 물가상승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지의 여부는 노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노동생산성 변화, 공급자의 수익탄력성, 유통단계의 수익탄력성 등에 따라 결정됨.

□ 1단계 여과: 노동원가 전이계수

- 기타 여건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원가가 15% 상승할 경우 농산물 가격, 공업품가격, 서비스 가격은 각각 4.1%, 1.29%, 3.12% 상승하여 물가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약 2.98%임.

□ 2단계 여과: 노동생산성 증가는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

- 농업 총산출 증가율에 따라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중 1/3을 해소할 수 있음. 2단계 여과를 거친 후 노동원가가 15% 상승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2.0%로 낮출 수 있음.

□ 3단계 여과: 공급자의 수익탄력성

- 공급자 수익률이 15% 하락하는 상황에서 노동원가가 15% 상승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1.78%로 낮출 수 있음.

□ 4단계 여과: 유통과정의 수익탄력성 영향

- 유통과정의 수익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전이에 영향을 미치게 됨. 유통과정의 수익률이 줄어들고 물류원가가 15% 감소된 상황에서 노동원가가 15% 상승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89%로 낮출 수 있음.

표1: 노동원가 상승과 물가의 관계

원가구성	인건비 상승률	10%	15%	20%
1단계 여과: 노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1.99	2.98	3.96
2단계 여과: 노동생산성 향상		1.33	1.99	2.64
3단계 여과: 공급자의 수익탄력성		1.19	1.78	2.37
4단계 여과: 유통과정의 수익탄력성		0.59	0.89	1.18

□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1.94%임.

- 일반적인 경우, 노동원가가 연 15% 상승할 경우 CPI 상승률 평균치는 약 1.94%임. 노동원가가

15% 상승하였지만, CPI상승률이 1.94%보다 높으면 CPI는 통화, 수요, 기타 원자재 상승(혹은 상승 기대) 등 요인에 따라 변화된 것임. 따라서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됨.

4. 4단계 여과 모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수입형 인플레이션의 역설

- 이론상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입형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지만, 검증 결과 대다수 경우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관련 완제품 가격은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함.

□ 1단계 여과: 원자재 원가가격의 전이계수

- 수입 원자재 가격 전이계수의 여과를 거친 후 수입 원유 가격이 15% 상승하였을 경우 제품유 가격은 5.83% 상승하게 되고, 수입 철광석 가격이 15% 상승하게 되면 철강 생산비용은 2.51% 상승하게 되며, 수입 펄프 가격과 수입 대두 가격이 각각 15% 상승하게 될 경우 국내 종이 가격과 콩기름 가격은 각각 2.25%와 5.03% 상승하게 됨.

□ 2단계 여과: 노동생산성이 원자재 원가 상승을 해소

- 전사회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9.34%의 원자재 원가가격 상승을 해소할 수 있음. 노동생산성의 여과를 거친 후 수입 철광석 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철강 생산원가는 2.36% 상승하게 되고, 자동차산업은 철광석가격이 상승한 모든 부담을 소화시킬 수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연관 산업인 화학섬유, 고무, 플라스틱도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50%의 수입 석유가격 상승폭을 소화시킬 수 있음.

□ 3단계 여과: 과도한 경쟁 패턴에 따른 기업의 수익탄력성

- 과도 경쟁은 공업완제품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킴. 다양한 산업체인은 수익을 하락시킬 수 있음.

□ 4단계 여과: 유통과정의 수익탄력성

-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중국의 유통원가는 50% 낮출 여지가 있음. 유통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에서 국제적 일반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원자재원가 상승이 완제품 및 최종 소비영역으로의 전이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수입원자재 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0.3%의 CPI상승률을 견인

- 1단계와 2단계 여과를 거친 후 수입 원자재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0.3%의 CPI상승률을 견인하게 됨. 기업의 수익탄력성과 유통단계의 수익탄력성은 관련 원자재가격 상승의 충격을 더욱 완화시킬 수 있음.

5. 2011년 물가분석 및 예측

□ 4단계 여과 모델에서 보면, 노동원가가 15% 상승할 경우 국내 CPI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1.94%에 불과하여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에 대한 영향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4단계 여과 모델에서 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CPI에 0.3%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된 것임.

□ 4단계 흡수 모델을 보면, 많은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향이 가장 큰 시기는 2010년으로 2011년의 물가상승 압력은 2010년보다 낮음.

□ 노동원가 상승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요인 이외, 기타 요소는 모두 주기적인 요소거나 기대 요소임.

- 이중 단기 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은 ① 봄철 과일과 야채 가격의 하락, ② 통화통제의 효과로 통화요소의 영향이 점차 완화, ③ 자동차와 부동산 등 기반산업의 공급과 수요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임.

□ 하반기 CPI는 3.12% 상승하고 "민생 핵심 CPI"는 상반기에 1.5%, 하반기에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 통제의 핵심은 ①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② 식품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며, ③ 통화를 잘 관리하는 것임.

□ GDP성장률은 상반기에 9.6%에 달하였지만, 3/4분기에 9.4%로 다소 하락하고 4/4분기에 비교적 안정되어 2011년의 GDP성장률은 9.5%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제성장을 보면 여전히 고정자산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액은 25.6% 증가하였고 2011년에 25%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외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하락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는 연착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연초 많은 학자들은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작았지만, 현재 점점 많은 학자들이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 즉 이번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중국경제의 연착륙은 바로 경제성장률이 1%p 내외 하락한 9.5%를 실현하고 물가상승률은 7월에 소폭 하락하고 8월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12월에 CPI를 4% 내로 통제하여 2011년의 CPI상승률을 4.8%로 통제하는 것임.

□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게 되고 물가상승 통제가 가능한 이 시점에서 경제구조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임.

-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2011년과 2012년(GDP성장률이 8.5%, CPI상승률이 3~4%로 전망)의 경제는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지만 2013년에는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부동산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더 이상 예전처럼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년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으로 부동산투자와 지방의 인프라투자 및 수출 감소를 보완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물가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

- 기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장기적인 원가상승 요인임. 하지만 장기적인요소가 연 CPI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2.5%~3%로 그 영향은 제한적임.
- 6월의 CPI상승률은 6.4%를 기록하였는데 주로 식품가격 상승으로 CPI상승에 75% 내외의 영향을 미쳤음. 특히 6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은 CPI상승에 21.4%의 영향을 미쳤음.
- 매번 식품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많은 학자들은 이번의 식품가격 상승은 과거와 달리 장기적인 상승주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결과를 보면 이런 판단은 옳지 않음.
- 공급과 수요가 가격변화를 결정하고, 공급 탄력성이 가격변화폭을 결정하며, 공급 탄력성이 작을 수록 가격변화폭이 더욱 크고, 농산품(돼지고기 포함)의 생산주기가 가격변화 주기를 결정하며, 농산품에 대한 투기행위는 다음번 농산품공급이 최고점에 달하기 전까지만 효과적이며, 농산품가격 상승은 언제든지 하락할 것 임.
- 장기적(예컨대 10년, 20년)으로 보면, 농산품을 비롯한 상품 가격은 점차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은 여전히 거미집모형에 따라 변동하는 것임.
- 이번 돼지고기 가격의 급상승에 대해 정부에서는 예전처럼 농민들이 돼지를 많이 키우도록 권장한 것이 아니라 비축 돼지고기를 시중에 방출하는 것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시민들을 안정시켰음.
- 중국은 7월과 12월이 각각 돼지고기 공급 최고점으로 7월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고 12월부

터 돼지고기 가격에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하면 중국의 물가는 상당히 복잡하여 장기적 요인이 있는 동시에 단기적 요인도 있고, 공급과 수요 요인도 있으며, 통화정책 등 거시적 요인 이외 유통 등 미시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중국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과잉 경제구조로 이번의 물가상승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향후 10년간에 과거 10년처럼 연 1%~2% 내외의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3%~4%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정부나 투자자나 서민들은 중국의 장기적으로 온화한 인플레이션에 적응해야 할 것임.

<질의·응답>

질문 1.

최근 물가와 관련하여 환율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3~4월에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환율절상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상당수 중국의 이코노미스트도 1년 사이에 5% 내외로 절상하거나 심지어 7% 이상까지 절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음. 하지만 최근까지 나온 선물환율을 보면 환율 절상 폭이 오히려 줄어들고 향후 1년간 2%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1년 하반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되고 통화 압력이 줄어들고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물가상승도 완화하게 될 것이어서 환율절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없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왜 7% 내외의 높은 환율절상을 예측하고 있는가? 선물환율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답변 1.

정부에서는 위안화 절상탄력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리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나 연구기관에서 5%나 7%의 위안화 절상폭을 예측하고 있음.

우리는 연초에 7%로 예측하였음. 위안화 절상압력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음. 우선 위안화 절상속도가 위안화 절상 기대보다 늦어 매월 400~5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중앙은행은 매

월 증가하는 외환보유액에 해당되는 약 3,300억 위안의 위안화를 발행해야 하는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반드시 새로 발행하는 3,300억 위안을 회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0.5%의 은행지준율을 향상시키는 것임. 표면상 발행한 통화만큼 다시 회수하였기에 통화공급량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에 큰 영향을 미쳤음. 왜냐하면 통화 발행과 통화회수의 주요 대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임. 즉 중앙은행이 신규 증가된 외환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대상은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자기업이거나 수출입은행, 수출입기업이지만, 통화회수 대상자는 내자기업임. 따라서 위안화 절상이 완만하게 추진됨으로 인해 중국경제와 중국의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음. 위안화 절상의 가속화는 언제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임.

지금까지 선물시장 지표를 보면 2% 내외로 절상하였지만, 하반기에 큰 폭으로 절상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5%의 절상폭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음.

질문 2.

중국에서 구조전환과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적절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2~3년 뒤 중국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경제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그럼 중국경제 조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어떤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중국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조정과 경제 전환이 완만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답변 2.

경제구조조정은 국내외경제 균형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두 추진해야 함. 장기적인 환율문제, 무역흑자 등으로 인해 중국의 국내경제는 물가상승, 자산 가격 버블 등을 비롯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기에 기존 국내외 경제의 불균형에서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우선시해야 할 문제임.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 외자유치정책, 수출을 권장하는 대외무역 정책 등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결정은 여전히 10년 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국내외 경제의 균형을 실현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함.

그 외 투자와 수출에 과도 의존하는 중국경제 모델을 조정해야 함. 투자와 수출에 과도 의존하는 것은 기존 중국경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이지만, 매년 경제가 하락할 때마다 정부는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입함. 이런 정책은 중국의 경제조정의 추진을 저해하였음.

이번 "12.5"계획에서 향후 5년간의 GDP성장률을 7%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큰 여지를 남겨둔 것임. 향후 몇 년 동안은 과거 발생하였던 그런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실시되지 않기를 희망함.

구조조정과 경제 전환에 있어 산업별 정책과 지역별 정책(서부대개발 등)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정정책은 구조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주로 시장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됨.

질문 3.

중국이 지역적으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수에 있어 동부지역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서부지역의 내수도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서부지역의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임. 내수확대에 있어 서부대개발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답변 3.

내수확대에 있어 서부대개발은 경제적 전략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의의가 더 큼. 특히 티베트, 네이멍구, 신장 등 지역에 대한 투자가 그러함. 사실 현재 동부지역의 수요도 10여 년 전 중국정부에서 대규모로 투자하여 얻은 결과임. 서부대개발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고정자산 투자의 하락을 완화시켜 투자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부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 국민의 소비는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짐. 즉 주택소비 이외 은행이자율에 대해 민감하지 않음. 소비를 촉진하려면 우선 주민소득을 향상시켜야 함.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올해 개인소득세 납세 기준액을 인상 조정하였음. 이 정책으로 중국 중저소득층의 소비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2011년 상반기 농촌주민의 현금 소득은 13.6%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GDP성장률을 초월하였고 농촌 주민의 소득증가는 중국의 내수확대와 소비 증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정부는 이전지급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소득을 더욱 향상시킬 것임.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소득 향상과 소비수요 확대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므로 단기 내 급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임.